

■ 부문별 우승자 인터뷰

“금남로 시민들 응원 큰 힘”

플코스 男 김수용 씨



“유서 깊은 옛 전남도청에서 출발한 올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돼 기쁨도 두 배입니다. 올 한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전 ‘한마을 마라톤클럽’ 소속의 김수용(37·대전)씨가 2시간37분23초의 기록으로 남자 플코스 결승테이프를 가장 먼저 끊었다.

최상이었다”며 “특히나 옛 전남도청에서 출발, 광주 시내를 통과해 영산강을 끼고 돈 코스는 최고중에 최고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금남로 한복관을 뛰면서 시민들의 응원 소리가 가장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이어 두번째 우승 영광”

플코스 女 이정숙 씨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플코스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정숙(47·천안시 와촌동)씨가 2시간56분35초의 기록으로 플코스 여자부 결승테이프를 끊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장식했다.

지난해 컨디션 난조로 초반 페이스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를 앞두고 지난 28일과 29일 각각 3.7km, 3.1km대회에 참가해 몸을 가다듬었다.
김씨는 “지난해 플코스에서 우승한 경험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감이 있었고, 지난 1년간 쉬지않고 훈련한 성과가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육상계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색참가 선수들

15년만에 달린 금남로 “감회 새롭다”

최고령 77세 고재신 씨



“다시 금남로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 마라톤을 처음 할 때 주최측과 7km 뛰니 10km 하니 육신각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15년 만에 다시 금남로 플코스 출발선에 선 이번 대회 최고령 참가자 고재신(77·광주시 동구 용산동)씨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한 듯 긴장감이 엿보였다.

해병대를 나와 구부하고 뛰는 것 하나는 자신 있다는 고 씨는 “많은 이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한다. 하지만 쉽게 이루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할 수 있다는 불굴의 의지로 자신과 싸워 이겨내야 한다”며 “내게 마라톤은 도전이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힘껏 달린다 보면 성취감도 느끼고 머릿속 복잡함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매일 1~2시간 운동 우승 밑거름”

하프코스 男 박승근 씨



“작년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 참가하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출전해 우승하게 되어 뿌듯합니다.”
하프코스 남자부 우승을 차지한 박승근(44·영암군청 지역경제과)씨는 대회를 위해 몸을 관리하고 새벽에 1~2시간씩 꾸준히 운동해 온 게 우승의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학창시절 나주고 육상선수로 활동했다는 박씨는 3·1절 전국마라톤이 광주에서 열리고 유서 깊은 대회라 꼭 우승하려는 자존심으로 뛰고 있다.
박씨는 “이번 우승으로 페이스를 끌어올려 앞으로 참가할 마라톤 대회에서 도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역사 깊은 대회서 좋은 추억 남겼다”

하프코스 女 이경화 씨



“처음 참가한 3·1절 전국마라톤에서 우승을 거머쥐어 뿌듯합니다. 여행 삼아 왔는데 큰 힘을 받았습니다.”
하프코스 여자부 우승은 이번 대회에 처음 출전한 이경화(37·경기도 안성시)씨가 차지했다.

이씨가 마라톤을 시작한 것은 순전히 건강을 위해서다. 무료한 생활에서 활력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든 이씨는 헬스로 달리기 시작했고 점차 활발한 성격이 되었다.
“광주시민의 열려한 환영과 참여자들의 격려와 응원도 큰 힘이 됐다”는 이씨는 “전국을 돌며 틀림이 대회를 참가하고 있는데 역사도 깊고 명망도 있는 대회에서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기분 좋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코스·날씨·운영 모두 최고였던 대회”

10km 男 유효봉 씨



“본격적인 봄 시즌을 앞두고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을 풀자는 생각으로 한껏 페이스를 올리며 달렸던 것이 우승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10km 남자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유효봉(44·거제)씨는 “코스과 날씨, 대회운영 모두 최고였다”고 평가했다.

이씨는 몸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 많은 직업의 특성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찾다가 취미로 마라톤을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유씨에게 마라톤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취미로 시작한 마라톤, 지금은 애호가”

10km 女 송미경 씨



“뛰기에 참으로 좋은 날씨였습니다. 덥지도 시원하지도 않은 행운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10km 여자부 우승은 김제마라톤클럽 소속 송미경(43·전북 김제시)씨가 차지했다.

차 기록도 단축했다.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뛰었던 게 주요했다”며 “지금까지 40분대 후반의 기록을 유지했는데 40분 이전으로 기록을 당겨 기쁘다”고 말했다.
송씨는 “3·1절 전국마라톤 대회는 코스도 너무 좋고, 시상자 폭도 넓어 동호인 사이에서도 인기”라며 “내년 대회에도 꼭 참여해 더 좋은 기록을 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우승의 순간은 늘 벅차고 기쁘다”

5km 男 이재식 씨



“우승은 늘 기쁩니다.”
가장 먼저 5km 결승선을 통과한 이재식(31·전주)씨가 “뛰고나면 상쾌하고 기분도 좋다. 좋아하는 달리를 하면서 우승의 기쁨까지 더해 행복하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씨는 플코스 우승 경력까지 보유하고 있는 마라톤 고수다.
전국 대회에서 수차례 우승을 차지한 이씨지만 우승의 순간은 늘 벅차고 기쁘다.
이씨는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세 번째 출전을 했는데 코스도 좋고, 대회 질서도 잘 지켜지고 마라토너들에게는 최상의 대회다”며 “겨울 운동이 부족해서 육심 안 부리고 5km에 출전했다. 전주에서 일찍 왔는데 좋은 코스, 날씨에서 즐겁게 달리고 우승의 기쁨을 안고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봄 바람과 함께 행복한 레이스”

5km 女 김애경 씨



“봄을 알리는 광주일보 대회에서 봄 바람과 함께 달린 행복한 레이스였는데, 우승까지 차지해 기쁩니다.”
5km 여자부 우승 테이프는 김애경(46)씨가 가장 먼저 끊었다.

올해로 마라톤 경력 13년째인 김씨는 지난 2003년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와 인연을 맺은 후 해마다 참가해 왔다. 특히 광주일보 대회에서 최근 3년간 플코스 여자부 준우승 1차례, 3위를 2차례나 차지하는 저력을 보이는 등 수준급의 실력까지 갖추었다.
대회가 없는 날이면 어김없이 헬스장을 찾아 몸을 가다듬고 집 주변의 가벼운 코스를 돌면서 체력을 점검하는 등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의 노력 때문이었다.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뛰었던 게 주요했다”며 “지금까지 40분대 후반의 기록을 유지했는데 40분 이전으로 기록을 당겨 기쁘다”고 말했다.

뛰면서 친구된 두 가족, 기분 좋은 꼴등



3·1 마라톤을 통해 한가족이 된 유리·지영 양이 함께 손을 잡고 환한 표정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일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 참가자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두 가족이 있었다.
주인공은 1시간 30분에 가까운 기록으로 5km부문 ‘꼴등’으로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한 최경식(37·김희진(여·36)씨 부부와 윤성(9)·유리(여·3) 남매. 그리고 최경선(37)·박선경(여·36)씨 부부와 지영(여·5)·성준(2) 남매.
인턴 보면 두 가족은 친척이나 친구지간 같아 보이지만 이들은 이날 마라톤 대회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다.

두 가족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맨 앞에서는 난생 처음 만난 경식씨의 막내 유리양과 경선씨의 첫째 지영이가 포옹을 하며 완주의 기쁨을 나눴다.
두 가족은 어린 자녀와 함께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뒤처지게 됐다. 하지만 어색한 마음이 통한 유리와 지영이가 두 손을 꼭 잡고 걸으며 친자매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현장접수 안돼 300여명 아쉬운 발걸음

현장접수가 되지 않는 이번 대회에서 수백여명의 시민들이 현장접수를 원하며 대회본부로 찾았다가 발걸음을 되돌리기도 했다.
봄기운이 완연했던 탓에 날이들 나섰던 가족들이 현장의 들뜬 분위기에 매료돼 현장에서 참가를 결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대회장에 머물며 시간 때벌로 출발하는 하프, 10km, 5km 종목 참가자들에게 “힘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일부는 현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담으며 자원봉사자를 자칭하기도 했다.
이화면(42)씨는 “아들(14)과 산책을 나갔다가 다른 가족들이 마라톤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참가해보고 싶어 대회본부를 찾았다”며 “올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년에는 꼭 미리 신청해 아들과 봄 바람을 쐬고 싶다”고 말했다.